

# “부산 불국토로” 달리는 법당

## 부산불교운전기사회 창립12돌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고영호)는 10월 26일 코모도호텔에서 창립 12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성오스님, 해충스님, 지인스님을 비롯한 지도법사 스님 등 5백 여명이 참석,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다졌다.

종횡무진 힘닿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왔다. 특히 올 전국체전 일주일 동안에는 자비콜 비번 차량 6백대를 동원 선수단 승수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9월과 10월에는 일요일을 이용 부산시내 교각, 교통표지판 등을 모두 청소해 부

다.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1백 20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자비콜은 아무리 깊은 산골의 절이라도 달리는 불자들의 손발이 되어 왔다. 지금은 자비콜 회원이 부산불교운전복지회 수를 늘어난 540여명에 달하고 있다. 고영호 회장은 “두 손 모은 합장의 마음으로 새로운 교문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자비콜의 목표”라며 “절에 가는 불자들은 물

## 회원 3백명 콜택시 540명 확보 ‘거리포교’

## 차량봉사·소년가장돕기 등 자비행 활발

산경철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한 활동을 펼치던 운전복지회 기사가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불국토 만들기에 나선 것이 자비콜 운행이

론 모든 이들을 합장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자비콜 회원들은 거리의 포교사임을 자부하며 합장으로 손님을 맞고 가장 친절할 콜택시가 되기 위해 친절 교육, 법회를 통한 신심 가꾸기도 정기적으로 쟁겨가고 있



◇부산불교운전기사회는 10월26일 코모도호텔에서 창립1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소년소녀가장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다. 하루 2천5백회에 달하는 전화수모 따져 보면 하루 1대가 만나 손님이 최소 50명. 한 달이면 자비콜 회원 한 사람이 1500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자비콜 운영을 통한 법을 전파, 기해 급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영호 회장은 “차량에 비치하고 보시할 수 있는 소책자나 영주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안타깝다”며 “뜻 있는 이들이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으로 부산불교운전기사회는 무사고 운행과 보다 친절한 자비콜 운영을 중시 목표로 부산불교운전기사회 산악회 창립, 월 1회 지역별 소규모 법회 활동, 삼광사 운전복지회 창립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깨달음의 전조등을 환히 쬐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게시판

### 알림

▲불교단체총연합회 임시총회=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는 4일 오후 2시 30분 본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02)734-5221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워크샵=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2~3일 김동 두산연수원에서 ‘지역통화운동(LETS)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다. 지역통화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또는 지역통화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02)587-8997

▲석불선양회 요선정 미륵불참배=한국석불선양회는 5일 사자산 법흥사를 참배할 순례자를 모집한다. 순례자들은 법흥사 적멸보궁에서 사시예불과 108배를 돌리고 영월 요선정 미륵부처님을 참배할 예정이다. 출발은 오전 6시 50분 동대문 이스타호텔 앞. (02)996-7945

▲영남불교대학 ‘쿤둔’ 영화 무료 시사회=영남불교대학은 4일 오후 6시 불교대학 3층 문화관에서 ‘쿤둔’ 영화 무료 시사회를 개최한다.

‘쿤둔’은 비폭력 평화주의를 추구하는 지구촌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티벳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으로 현재 전세계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는 걸작 영화이다.

### 강좌

▲불교귀능학교 건강강좌=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귀능희망자 및 삶의 변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제 7기 불교귀능학교 건강강좌를 1일부터 4차례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개최한다. (02)733-1884

▲선가귀감 강독=전북불교대학 보현학원은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층 대강의실에서 선가귀감 강의를 펼친다. 강의는 신원사 선원장 묘봉스님이 진행한다. (063)226-7878

▲유미경=동산반야회는 5일부터 1년간 유미경 강좌를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동산교육관에서 개설한다. 강의는 무진장 스님이 한다. (02)732-1206

▲지리산 열린학교=지리산 열린연대는 4~5일 지리산 피아골 산장에서 제 4회 열린학교를 개강한다. 019-622-8800 이학영

### 모집

▲가사지원 자원봉사자=송파제가 노인복지센터는 서울지역의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말벗, 생활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지원 등 봉사활동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불교의식교육원 수강생=해동불교범용대학 불교의식교육원은 불교의식 기본, 중급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자를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26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3매이다. (02)741-0495

# “생명·환경살리기 앞장 다짐”

## 직장직능 불자회 대법회 3천명 참석

### 현철·장기증 행사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한국운불련 등 전국 직장직능 120개 불자회 3천여명은 10월 22일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전국 직장직능 불자 연합 대법회’를 봉행하고 생명과 환경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식전행사, 법요식, 연애인 축하공연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사회는 물질적인 이익에 따라 개인과 집단마다 갈등하

며 공존과 화합의 원유무에(圓融無碍)한 본래 참 모습을 잃은 지 오래다”며 “연꽃처럼 청정하게 라는 오늘 이 자리의 표어처럼 여러분들이 처한 각자의 직장과 가정에서 스스로 청정한 모습을 잃지 말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신성한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식전행사로 펼쳐진 환경살리기 경기대회에서는 200여명의 불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환경의 소중

함을 알렸고, 환경수행을 새로운 불자의 수행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발원했다. 이와함께 현철 35명, 장기기증 77명, 화장사약 297명이 동참해 참 불자의 모습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2년간 직장직능불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후원한 결과 전국 직장직능 불자들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자제만으로도 큰 성과로 평가되지만 현철, 장기기증 등 생명과 환경살리기 행사에 불자들의 참여가 적어 행사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10월22일 불교간호사회는 해인사에서 스님들에게 독감예방접종 봉사활동을 펼쳤다.

# “약사보살 닮고 싶어요”

## 불교간호사회

## 해인사등 스님 1백명

## 독감예방 접종

불교간호사회(회장 황보선)는 10월 22일 해인사에서 독감예방 접종 봉사활동을 펼쳤다. ‘닮고 닮아가게’라고 모임명을 정한 불교간호사회는 이날 훈훈탁 부회장을 비롯 간호사 10명과 의사 1명이 동참해 100 여명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지난 해 송광사 성지순례때 스님들이 독감으로 고생

하는 것을 보고 계획한 것으로 10월 1일에는 송광사 스님 100여명에게도 접종해 호응을 얻었다.

훈탁 부회장은 3교대 근무로 많은 수가 한번에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 봉사활동은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예방 접종도 반응이 좋아 매년 실시할 것이라고.

전국에서 최초로 창립된 불교간호사회는 복지관 무료진료, 관세음보살보문회에서 좋은 법구를 가져 뽑은 소책자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행복하기를> 발행, 송광사 수련회 참석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2월에는 송광사 겨울 수련회 참석을 계획 중이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 성동구청 불심회 정기법회

성동구청 불심회(회장 박현수)는 10월 24일 미타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미타사 주지 상덕스님이 ‘정토세계를 가꾸는 불자의 삶’이란 주제로 법문한 이날 법회에는 2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 구미 거사림회 성지순례



## 우리모임에선

구미불교거사림회(회장 김원기)는 10월 22일 경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분황사, 황룡사지, 칠불암, 용장굴 등 경주지역 불교문화재를 참배한 이번 성지순례에는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신심을 다졌다.

## 불자가수회 정기법회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남강수)는 10월 25일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불자회 회원을 비롯해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팔당 각화사 해담스님이 설법했다.

## 은평구청 불심회 성지순례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10월 21~22일 고창 선운사, 도솔암, 일봉동산을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배영 구청장을 비롯해 5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불심을 키웠다.

# 탈 중 공 고

<b>용주사</b> 주 지: 배태웅 법 명: (만오) 소재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350-1	<b>신정포교원</b> 포교원장: 고복남 법 명: (혜진)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36-21	<b>연화기장포교원</b> 주 지: 허덕이 법 명: (혜연)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읍 장안리 181	<b>송학사</b> 주 지: 김춘자 법 명: (도안) 소재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317	<b>대각사</b> 주 지: 박준선 법 명: (지경) 소재지: 포항시 남구 대승면 대각리 50
<b>보현정사</b> 주 지: 정이화 법 명: (보현) 소재지: 경북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220	<b>대원사 포교원</b> 포교원장: 김술영 법 명: (정학) 소재지: 포항시 남구 대승면 대작리 산 107번지	<b>용주사 근무</b> 승 령: 이혁구 법 명: (수도) 승 령: 김해수 법 명: (만혜)	<b>해명포교원</b> 포교사: 현경자 법 명: (해명) 소재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성동 138	<b>두현사</b> 주 지: 문성호 법 명: (해공) 소재지: 경북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950-1

위 본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 중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중을 공고 합니다.

##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장 법하

2000년 11월 1일 수요일

#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5회 동강제약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도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이 향비를 신원(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성분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연 피몬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이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음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 기미** 저는 20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가 되면 곱어질듯 아프고 거기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이머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배변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를 배꼽(신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주일만 지나니 생리통이 사라졌고 기미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체형사례** 저는 20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가 되면 곱어질듯 아프고 거기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이머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배변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를 배꼽(신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주일만 지나니 생리통이 사라졌고 기미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애당되는 중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5. 기미가 있다.
6. 생리 때 배가 아프고 고통스럽다.
7. 두통이 있거나 두통이 있다.
8. 생리 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 때 배변이 잘 안 된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붉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 한국방한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 2가지 이상 애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십시오.